

## “물가·AI 서민 아우성인데 정치권 개헌 타령만 하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연휴 민심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다” “뛰는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무섭다” “주변에 청년 실업자는 늘어난다고 경제는 어려운데 일부 정치권은 개헌 타령만 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기간 정치권이 확인한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바다이었다. 6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각종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썰렁해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생필품을 중심으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주부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고 기름 가격 폭등에 따른 시설후수 재배농민들의 불만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물가와 일자리 문제, 구제역 사태와 전세란 등 4대 민생대란의 종합판을 본 설연휴였다”며 “명절 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산물이나 노래저장 등으로 모

처럼 고향을 찾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곤 했는데 올해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놀이문화도 완전히 소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관심이 없었다. 개헌의 ‘개’자도 묻는 국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경제는 잘 할 것이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서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 왔다”며 “물가를 비롯해 서민들의 바다경제는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은 “농촌지역은 소득이 지난해 20~30% 수준인데, 구제역과 AI까지 겹쳐 설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구제역 등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에 농민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었으며 일부에선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한 식당 주인은 ‘돼지고기와 채소 등 원재료 값은 곱절이나 올랐는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고기를 기피하고 있어 음식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으며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 어떻게 차례상을 차리느냐고 성토했는 등 민심이 흉흉했다’고 전했다.

장병완 의원은 “재래시장이나 마트 등지에서 만난 지역민들은 하나같이 물가안정 대책을 주문했고, 상인들도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며 “지역민들은 정치 쟁점보다 먹고 사는 문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언제쯤 좋아질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농민들은 반드시 구제역을 막아 ‘청정 전남’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민생을 잘 챙기고 현장정치, 봉사 정치를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윤석 의원은 “소와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는 전남지역에 구제역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 문제, KTX 무안공항 경유 문제 등에 대해 정치권이 싸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민국 3위... 동계아시안게임 폐막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날인 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실내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에서 금메달을 딴 박도영(왼쪽부터), 노선영, 이주연이 태극기를 흔들며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역대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비롯해 은메달 12개, 동메달 13개를 수확하며 목표했던 종합 3위를 달성했다. > 관련기사 18면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 과학벨트 유치 전쟁

충청권 “분당” 거론 속 내일 광주유치 토론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학벨트 입지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야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 공약 파기 의사를 내비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에 공약집에 있었지만 ‘이명박’을 표가 아쉬워 공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세종시 문제로 상처받은 충청권에 대한 약속을 또 다시 헨신처럼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과학벨트를 표가 아쉬워 공약했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충청권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6일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과학벨트 백지화 망언 규탄대회’를 여는 등 실력 행사

에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지만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장, 친박(친 박근혜) 진영은 물론 친이(친 이명박) 진영에서도 공약 파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내에서도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충청권과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충청권 의원들이 ‘분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오는 8일 국회에서 ‘과학벨트 광주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과학벨트의 호남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과학벨트 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신년 좌담회 발언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과학벨트가 기능별로 특화되면서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등 3각 벨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3개 지역이 모두 과학 인프라 연구·개발(R&D) 기반을 갖추고 있는 데다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도 설연휴 구제역·AI 없어 ‘안도’

교과부, 발생 지역 개학 연기 검토 지시

설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전남도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이 질병 발생이나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충남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지역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아 방역작업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의 초·중·고교는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는 6일 설 연휴기간 동안 AI 및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지난달 25일 구제역 예방면 한 오리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이날 현재까지 12 일째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구제역도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30일 장성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확인된 뒤 추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이날까지 충남 홍성과 경북 울진, 경북 경산, 충남 천안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중앙정부 산하의 축산 연구기관으로 국내 축산자원의 보고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곳에서 사육중인 돼지가 구제역 예방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구제역에 뿔했다는 점에 주목, 방역벨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귀성·귀경객들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80여곳의 방역초소에 15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소독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5일까지 나주·고흥·곡성·강진 등 4개 시·군의 돼지 22만마리에 대한 집중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소(54만8000마리)와 돼지(96만5000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사교육비 절감의 도심형 기숙학원!!

+50점 상승 전략, 알 때까지 가르치는 무한 학습 관리!!

【도심형 기숙학원】내입재수 종합반 모집

개강: 1차 2월 14일(월) / 2차 3월 2일(수)

호남권 학생 특별 우대!!

월 1,190,000원

수강료 + 기숙사(1인1실) + 식비

1. 최고의 환경과 최강의 강사진
2. 학과·학습·생활 ▶ 철저한 책임제
3. 언·수·외 강사진 24시간 질의 응답 및 1:1 무한 관리
4. 반별 정원 30명 내외(소수 정예)
5. 매월 논술 모의고사 실시 및 참석 지도

※ 직접 방문 확인 하신후 등록 하세요!

1인1실 숙소, 쾌적한 강의실, 인터넷 강의실, 자기 주도 학습실, 구내 식당, 체력 단련실

등록상담 : (일산본원) 031.9192.114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사)한국교육발전협의회 하이클래스 hiclassedu.co.kr 한국학원